

[기획] >> 5면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

[심층] >> 7면
귀향길 교통편 부족

[사회] >> 8면
교권 침해

[인물] >> 12면
오의식 세무사를 만나다

교강사 부족 우리학교, 불편은 학생 몫

최근 일부 교과목이 교강사를 구인하지 못해 폐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교강사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강사 부족의 현황△교강사 부족의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글 · 사진 남우현 기자 07woohyun@hufs.ac.kr

EU연구소, 홋카이도대학교 공동 주최 한·중·일 북극 연구 커뮤니티 학술대회 참가

우리대학 EU연구소는 지난달 28일에 홋카이도대학교(北海道大学)에서 열린 북극 연구 커뮤니티인 NPARC(North Pacific Arctic Research Community)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NPARC 세미나는 △일본 홋카이도대학교△중국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SIIS)△한국해양수산개발원(KMD)이 매년 △한국△중국△일본 순으로 공동 개최하는 국제 학술대회다. 이번 해는 일본 홋카이도대학교에서 한·중·일 3국의 다양한 북극 연구 분야 관련 다자 연구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북극권 국가 연구 사업과 연계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중·일 동북아 3국의 북극권 국가 연구 사업과의 연계 협력 가능성을 연결하는 취지에서 개최됐고 한·중·일 전문가들이 학문적 견해를 나누는 기회의 장이 됐다. 이번 한·중·일 북극 연구 커뮤니티 학술대회엔 3개국 정부 대표 자격으로 △박종석 우리나라 외교부 극지협력대표△일본의 타케와카 케이조(竹若敬三) 북극대사△중국의 가오펑(Gao Feng) 북극대사가 참석했으며

한·중·일 3국의 주요 북극 관련 연구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미래세대△북극과학△북극협력△지속가능이라는 주제로 총 4개의 주제로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했다. 우리나라 측에선 △극지연구소△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우리학교 EU연구소△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연구자들이 참가했다. 우리학교 EU연구소에선 각 부문의 북극과 관련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북극 협력 부문에서 김봉철 EU연구소 소장은 한·중·일 북극문제에 관한 법률 비교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미래 연구자를 위한 미래세대 부문에서 신의찬 EU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심민섭 일반연구원 인 박사과정생은 각각 ‘북극 지역에서 EU의 존재: EU의 북극 정책에 초점을 맞추다’와 ‘한국의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다음 해에 열릴 차기 NPARC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성민욱 기자 07minwook@hufs.ac.kr

우리학교 한국경제교육학회, 2023 하계 학술대회 개최해

지난 24일 우리학교 오바마홀(Obama Hall)에서 박정은 우리학교 제12대 총장(이하 박 총장)은 한국경제교육학회 주관 동아시아 경제교육 교수학습방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2023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창립 29주년을 맞이한 한국경제교육학회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과 공동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해 △일본△중국△한국의 경제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경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한국경제교육학회는 지난 1994년에 창립돼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경제교육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주로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엔 생애주기를 고려한 평생교육 차원의 경제교육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우리학교 경제학부 교수인 한경동 회장(이하 한 회장)이 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학회의 주요한 학술활동으로 정기학술대회와 학회 세미나가 있다. 지난 2021년 동아시아 경제교육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으며 이번 해 2월엔 제45회 학술연구 발표대회가 열렸다.

1990년대 창립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학회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개회식엔 한 회장의 개회선언과 미즈노 카츠시(水野勝之) 일본경제교육학회 회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기조강연에선 전 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이었던 김상규 대구교육대학교 명예교수가 유가(儒家)로 만나는 상생경제교육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선 김태환 춘천교육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일본△중국△한국 발제자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한 한국경제교육학회 한 회장은 “앞으로도 한국경제교육학회는 다양한 경제교육 주제에 대해 소속 회원의 연구와 현장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학술대회를 지속할 예정이다”고 답했으며 덧붙여 “특히 외국 경제교육학회와의 교류를 통해 경제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지윤 기자 07jiyeon@hufs.ac.kr

인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공헌하는
삼광바이오�트리그룹

SML Samkwang
Biotree Group

삼광바이오텍그룹

삼광의료재단 - 검체검사 수탁기관

SML메디트리 - 임상시험 검체분석서비스

삼광랩트리 - 검체검사서비스 / 바이오 물류, R&D

SML제니트리 - 분자진단 / 유전체 연구

SML바이오팜 - 차세대 백신 R&D

삼광바이오텍그룹
채용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제학회 쿠세아(KUSEA), ‘2023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대회 최종 수상 영예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는 지난 2003년부터 한국은행에서 주관해 매해 개최되는 행사다. 우리학교 중앙동아리 경제학회 쿠세아(KUSEA)는 지역예선 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7개 팀을 대상으로 열린 전국결선대회에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는 학생들에게 통화정책 결정 과정의 모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 한국은행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 대회는 기준금리에 대해 학생들이 팀을 이뤄 직접 실물경제와 금융 부분의 분석을 통해 기준금리 △동결△인상 △인하 중 하나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우리학교 대표로 대회에 참가한 쿠세아의 아가네지 사형제팀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학회 지도교수인 손종철 우리학교 경제학부 교수(이하 손 교수)와 송준혁 우리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지도 아래 출전하게 됐다. 아가네지 사형제팀은 지난 5월에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이슈 중 비은행 금융기관 부실을 주제로 선정하고 이를 심층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했다. △광주·전남△경기△대구·경북△대전·세종·충남△부산의 전국 6개 본부에서 총 58개의 팀이 지역예선대회에 참가했다. 이어 지역별 최우수상을 수상한 7개의 팀이 최종 전국대회에 진출했다. 아가네지 사형제팀은 예심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시상 모습 (출처: 전락홍보팀)

을 거친 결과 서울지역 예선 대회에 진출하는 기회를 얻었다. 서울지역 예선 대회는 총 19개 팀이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뉘어 7월 기준금리 결정을 주제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전국결선대회에 나선 아가네지 사형제팀은 국내외 △경기△경제△금융△외환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결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해 직접 시상했고 아가네지 사형제팀을 포함한 수상팀에게 한국은행 본부의 금융 통화위원회를 견학하며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손 교수는 “올해 초부터 경시대회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꾸려 공부와 토론을 주도하면서 이뤄낸 눈부신 성과라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지역 예선 1위를 거쳐 전국대회 출전 및 수상에 이르는 결과에 김민서 아가네지 사형제 팀장은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라는 큰 대회에서 의미 깊은 성과를 거두었음이 만가지 않는다며 강의와 연구로 바쁜 와중에도 지도와 자문에 도움을 주신 교수님을 비롯한 팀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대회 최우수상과 전국대회 장려상 등 뜻깊은 결과에 더해 경제에 대한 넓은 시각과 매일 신문을 보는 좋은 습관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성민욱 기자 07minwook@hufs.ac.kr

우리학교 코트라(KOTRA), 글로벌 지역통상 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지난 25일에 우리학교는 코트라 국제지역 통상전문가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트라는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의해 설립됐다. 이는 우리나라 무역 진흥을 위한 공공서비스 기관으로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선도하고 정부통상 정책의 입안과 실천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역의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을 우선시하고 있다. 코트라는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사업△정부수입사업 수행△해외마케팅 및 맞춤형 수출지원 활동△해외진출 지원 및 정보조사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근대 우리나라 해외시장의 무역 개척을 맡았다. 설립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적 배경은 빈곤한 상황이었지만 이후 1970년에 정부의 수출진흥 정책에 맞춰 △수출상품 아이디어뱅크(idea bank) 운영△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연구업무 추진△수출정보센터 설치 등을 통해 업계의 수요를 선도했다. 2010년대에 들어선 국내 최대 수출상담회 자유무역협정(FTA) 사업 박람회와 외국인 투자주간 2012(Foreign Investment Week 2012) 등을 개최하며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우리학교의 국제지역학 전문성과 코트라의 국제적 현장경험 및 네트워크를 결합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국제 지역 전문성을 갖춘 사업 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체결됐다. 탈세계화시대의 지역화 요구



▲코트라-한국외국어대학교 업무협약 체결식 (출처: 전락홍보팀)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내 한국국제지역전략학 석사과정(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을 신설해 공동 운영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 해외 권역별·국가별 지역연구 심화 과정을 비롯해 △국제적 가치사슬 재편△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국제적 무역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다년간의 해외

근무 경험이 있는 코트라 출신 인력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현장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협약 체결 이후엔 신설 학과에 대한 모집요강을 확정해 다음해 전기 신입생부터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박정운 우리학교 총장은 “이번 협약의 의미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양 기관이 차별화된 교육 모델을 통해 수출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국제 사업 전문인력 양성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며 “국제지역 통상전문가 양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통상 사업 발전과 수출 다변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국제 공급망 재편 등 지역화 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트라의 해외 네트워크 지역본부 편제와 우리학교의 지역학 강점이 학문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잘 조화를 이뤄 효과와 극대화될 것이다”며 “코트라와 우리학교 간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 구축으로 수출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국제 사업 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박하은(아시아·마인어 23) 씨는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국제지역 통상전문가 양성이란 목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이번 체결을 계기로 우리학교에서 전공별 통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인 지역 전문가 양성을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지윤 기자 07jiyoon@hufs.ac.kr

우리학교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제2회 K-세미오시스 사진 공모전 개최

우리학교 세미오시스(Semiosis) 연구센터의 지역 인문학센터 세미오버스(Semioverse)는 인문학 대중화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제2회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한국적 이미지: 문(門) - 드나듦의 공간’이다. 세미오버스(Semioverse)는 “문은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통로이자 매개체며 두 공간 사이의 경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은 우리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론 가로막는 존재라고 전했다. 우리학교 세미오시스 연구센터는 국내외 어문학 연구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온 본교의 언어연구소와 외국문화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및 국제 학술 대회 및 초청 강연 개최△교육 프로그램△세미오시스 학교 운영△학술 논문 및 총서를 통한 연구 성과 창출 국내 및 국제 저명 학술지 발행 등 다양한 학술 행사와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을 기획한 서종석 우리학교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센터장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이 이번 공모전의 주제다”며 “△각종 교통수단의 문△건물의 문과 장문△동물들을 위한 문 등 여

러 가지 ‘문’에 대한 이야기와 느낌을 사진에 담아 보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오시스 연구센터는 연구 결과물과 창출된 지식을 대중이 이질감 없이 친화적인 형태로 재가공해 접근의 편의성을 높여 지역 주민과 소통함으로써 시민들이 함께 인문학적 사고와 통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총상금 500만원의 이번 공모전은 지난날 22일부터 오는 10월 10일 오후 2시까지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우리학교 학생 백인호(사회·정외 23)씨는 “이번 사진 공모전의 주제인 문 의 상징과 의미에 공감한다”며 “지역인문학센터가 어떤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는지 관심이 부족했지만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앞으로의 사업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성민욱 기자 07minwook@hufs.ac.kr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지역청년과 함께 하는 해외영업 직무캠프 개최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총 2박 3일동안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교원그룹 비전연수원에서 해외영업 직무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지난 2015년부터 약 6년간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취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온·오프라인 기반 시설 구축△일자리 매칭 지역△지배구조 체계 심화△진로취업 교육 강화 등의 업무를 통해 지역거점 선도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 사업을 진행하며 청년 고용을 위해 힘쓰고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거점형 특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제적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캠프는 국내기업의 해외영업 부문 취업을 목표로 하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학교 재학생뿐 아니라 △건국대학교△국민대학교△단국대학교△삼명대학교△세종대학교△한양대학교 등 해외영업 직무 취업준비생 27명이 함께 참여했다. 캠프 참가자 전원은 해외 영업 직무의 채용 동향과 전망에 대한 전문 강사진의 특강을 청취했다. 현직자

및 전문컨설턴트와 1:1로 직무 기반의 입사지원서를 완성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한 기업체 인사관계자로부터 △인성면접△AI면접△PT면접 등에 대한 면접전략과 개인별 실전 모의 면접 피드백 등도 상세히 받을 수 있었다. 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은 “다른 방해요인 없이 한 자리에서 지원을 쓰고 즉시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며 지속적으로 학습한 후 최종본까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며 “학교는 다르지만 같은 직무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라 더욱 유익했다”고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민정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은 “최근 채용시장은 과거와 달리 대규모 공채보다 직무별 수시 채용이 확대되는 분위기”며 “최신 유행에 맞게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직무 영역에 대한 과정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 방식을 구축해 더 많은 취업준비생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지윤 기자 07jiyoo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야간) 2024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4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3.09.22(금) ~ 10.06(금)	2023.11.03(금) ~ 11.20(월)
고사장 발표	2023.10.18(수) 15:00	2023.11.29(수) 15:00
면접전형	2023.10.21(토) 10:00 예정	2023.12.02(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3.11.03(금) 15:00	2023.12.15(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3.11.06(월) ~ 11.10(금)	2023.12.18(월) ~ 12.22(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향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공공감사·정책학과(공공정책, 공공감사)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국가안보)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가.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군사 안보 전문 분야(예: 정보기관, 국가 안보 분야 등)에서 최소 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보유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정치행정언론대학원 홈페이지-입학안내-대학원 입학 안내-대학원 원서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출석(한정)면접’에만 대상, 예 해당하는 지원자에게는 원격(화상) 면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장학금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 됨”)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 공로 장학금 - 학비감면 장학금 - 원우회 입원 장학금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입학생 전원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
다. 본 대학원 내 학과인 교과수강 가능
다. 온라인 병행수업 진행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

TEL 02-2173-2428, 2429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4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4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3.09.25(월) ~ 10.11(수)	2023.11.06(월) ~ 11.22(수)
고사장 발표	10.18(수) 15:00	11.29(수) 15:00
면접전형	10.21(토) 10:00 예정	12.02(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1.02(목) 15:00	12.14(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11.06(월) ~ 11.10(금)	12.18(월) ~ 12.22(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 일정은 정원 총원 상향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정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학과
라. KFL 문화 및 소통 전공(협동과정)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급 학기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이 외국어인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 대학원 홈페이지 다문 가능)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8) 재직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1) 자격증 : 초·중·고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2) TOPIK(한국어교원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초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환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F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우리학교 분실물,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선

개강 후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게시판인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선 학생들의 분실물 관련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에타를 통해 분실물을 찾는 데엔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학교에선 분실물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그 존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학교 내 분실물 센터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해 기사를 통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분실물 관리 현황

우리학교 에타엔 분실물의 주인을 찾는 글이 자주 게시된다.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해당 물품의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올린 후 주인을 찾는다. 특정 장소에 분실된 물건을 두고 해당 분실물의 주인이 가져가게 하거나 직접 가져다주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분실물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조수빈(응인 23) 씨는 “에타에 올라온 분실물을 찾기 위해 요청한 장소로 갔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우리학교 내엔 학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분실물 관리 부서인 원스톱서비스센터(One-stop service center)가 존재한다. 원스톱서비스센터에선 현재 습득물과 분실물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원스톱서비스센터는 대개 학생들로부터 분실물을 습득했다는 접수를 받고 해당 물건의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분실물들은 원스톱서비스센터 내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원스톱서비스센터 역시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설캠에선 습득물 17건과 분실물 3건이 신고됐다. 글캠의 경우 습득물 4건과 분실물 3건이 신고됐다. 반면 에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2학기 분실물 관련 게시물은 양 캠퍼스 모두 약 50개 정도다. 이는 원스톱서비스센터에 올라온 게시물 수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보통 학생들은 분실물을 습득하거나 찾을 때 원스톱서비스센터보단 에타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현주(영여·EICC 22)씨는 “원스톱서비스센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며 분실물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우리학교 원스톱서비스센터 표지판

◆나아가야 할 방향

현재 우리학교의 분실물 센터인 원스톱서비스센터는 단과대나 총학생회(이하 총학)과의 연합없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건국대학교(이하 건대)의 경우 KU분실물 센터란 기구가 존재한다. 건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총학가 관리하는 분실물 접수 장소에서 분실물을 접수하면 단과대학과 총학 근무자가 분실물을 보관하고 교내통합분실물센터 홈페이지

이지에 곧바로 정보를 기입한다. 분실물의 주인은 분실물 센터 방문 예약 후 분실물을 찾을 수 있다. 분실물 폐기에 관련된 정보 역시 홈페이지에 서술돼있다.

우리학교의 경우엔 학생들이 직접 센터에 접수하는 방법만 존재하는데 적극적인 분실물 관리를 위해선 단과대학 및 총학과의 협력은 고려해 볼 만한 방안이다. 총학에 따르면 현재 원스톱서비스센터가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분실물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없지만 현재 원스톱서비스센터가 잘 알려져있지 않고 접근성이 낮음을 인지해 원스톱서비스센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원스톱서비스센터에 대한 홍보가 미비해 해당 기관이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하지만 외대학보가 묻는 추후 홍보 계획에 대한 질문에 원스톱서비스 센터 측은 “해당 부서 홍보 계획이 없으며 더불어 분실물 센터 홍보도 계획 중이지 않다”고 답했다. 분실물과 관련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원스톱서비스 센터 사용을 위해 그 해법을 고민해야할 때다.

자유술 기자 07yusol@hufs.ac.kr

후속보도

새 학기를 맞아한 우리학교, 화재엔 무사한가?

가을이 다가오면 화재 안전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른다. 화재 안전 문제는 학생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우리학교에서도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외대학보 973호 기획 기사에서 다룬 우리 학교 화재 안전 관리에 현재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보자.

◆우리학교 화재 안전 관리 시설 현황

우리학교 건물의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특정 문들은 위급상황에 대피하기 위해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학교 양 캠퍼스(이하 양캠)의 비상구 문들은 모두 열려있으며 닫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된 상태다. 학교 측에 따르면 소화기는 설치 기준에 맞춰 복도의 보행거리 약 20m 범위마다 설치돼 있다. 또한 모든 건물의 각 실마다 1개 혹은 2개의 소화기를 배치해 두고 있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시설관리팀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는 매달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스프링클러를 실제로 작동해 점검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스프링클러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펌프인 △가압송수장치 압력유지상태△배관△밸브△MCC반 등을 점검한다. 또한 소화전은 △월정기△작동 가능△종합정밀 점검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소방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연 2회 기숙사 지진 및 화재대피훈련과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화재안전교육은 동대문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이론 및 실습교육을 진행하며 축제 기간 부스운영을 통해 재난 시 대피요령 및 소화기 사용교육이 이뤄진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시설관리팀에 따르면 △비상구△소화전△스프링클러 관리와 점검에 관해선 소방 안전관리 전문업체에서 매달 모든 소방시설에 대한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관리팀에서도 상시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특이 사항에 대해선 전문업체에 공사를 의뢰하거나 시설관리팀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 관련 교육은 매 학기 실제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화기·소화전 사용 방법과 대피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안전한 환경을 확보해 실습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학교 화재 안전 관리 시설, 개선됐나?

지난 기사에선 양캠 내의 △오래되고 관리되지 않아 먼지가 쌓인 소화기△소화전이 장애물에 가로막혀 사용하기 어려운 실태△비상계단과 비상구가 창고처럼 쓰이는 실태△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화재대피 훈련에 대한 내용을 지적했다.

설캠의 소화기엔 여전히 먼지가 존재했지만 소화기에 라벨이 붙어 있고 번호가 기재돼있어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설캠 시설관리팀에 따르면 △월정기 점검△작동기능 점검△종합정밀 점검을 통해 소화기를 관리하며 화재 안전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전 기사에서 지적된 국제학사 2층 소화전의 장애물은 제거된 상태였고 설치된 소화기 상태 역시 이전과 비교해 관리가 된 모습이었다. 또한 국제학사 운영팀이 지난학기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진 및 화재대피 훈련 시 글로벌캠퍼스는 70%와 글로벌홀은 65% 정도의 참여율을 보였다. 이는 극히 일부의 학생들만 참여했던 과거의 화재 안전 교육에 비해 현저하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기숙사생들 대부분이 훈련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장려했기 때문에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교육이 진행될 때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별점을 부과한 것 역시 개선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글캠의 경우 소화기와 소화전에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있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수준으로 과거 기사에서 언급된 소화기의 상태보단 호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소화기와 소화전이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어 사용이 어려웠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모두 개선됐다. 반면 비상계단 내부와 비상문 내엔 여전히 적치물이 존재했으며 그중 대부분이 청소용품이었다. 글캠 시설관리팀에 따르면 비상구와 비상계단의 적치물에 대한 안내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휴스돔(HUFS dorm)에선 매 학기 초 화재 안전 교육의 일환으로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그중 1회는 관할 소방서와 함께 합동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캠 기숙사의 경우 소방훈련 참여 시 상점 3점을 부여하며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었다는 점이 돋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학기 소방훈련 참여율은 11%에 그쳐 실효성 있는 유인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가을이 다가오는 이 시점 우리학교 화재 안전 관리 개선에 주목해야 할 때다.

자유술 기자 07yusol@hufs.ac.kr

교강사 부족 우리학교, 불편은 학생 몫

최근 AI 융합전공의 3학년 전공필수 교과목이 교강사를 구인하지 못해 폐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외대학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당 전공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 수업의 경우도 교강사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재도 AI 관련 강의의 교강사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음 해에 신설되는 학과의 교강사는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강사 부족의 현황△교강사 부족의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교강사 부족의 현황

AI 융합전공은 우리학교 융합전공 중 하나로 △공학 지식△비즈니스 △언어△AI 분야를 결합한 AI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AI 융합전공엔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를 합쳐 세 가지 트랙(Track)이 존재한다. 이 중 SW(Software & AI) 트랙의 3학년 전공 필수 과목인 소프트웨어공학 과목은 저학년 때부터 기른 프로그래밍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 교과목으로 다른 학생들과 조를 이뤄 협업하는 강의이다. 그러나 이 강의는 교강사를 구인하지 못해 폐강됐으며 박상원 정보통신학과 주임교수(이하 박 주임교수)는 이 교과목을 트랙 필수 과목에서 영구적으로 제외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당장은 물론 앞으로도 해당 과목을 담당할 교강사 채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AI 융합전공을 이중전공으로 수강하고 있는 A 씨는 “전공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 교과목이 뒤늦게 폐강 통보식으로 처리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현재도 다소 빈약한 우리학교 AI 융합전공의 교육과정이 더욱 빈약해질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AI 융합전공이 교강사 구인난으로 인해 폐강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학기 박 주임교수는 데이터사이언스 교과목과 인공지능 교과목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강됐음을 전공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이에 A 씨는 “개강 날까지도 해당 교과목의 교강사 배정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교과목 또한 이번 소프트웨어공학 교과목의 폐강과 같이 교강사 구인난으로 인해 폐강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전공 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교강사 구인 문제로 폐강된 것이 맞다고 밝혀졌다.

일부 강의들이 교강사를 알지 못한 채 수강신청이 진행되는 것도 교강사 부족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불편 중 하나다. 이번 학기의 경우 개강 전 주까지 교강사가 초빙되지 않아 일부 교과목의 교강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됐는데 이는 학생들이 수업에 필요한 교재 구매나 사전 학습 등 강의를 위한 준비를 어렵게 했다. 또한 증원 신청과 관련해서도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보통 증원과 관련해서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강사에게 연락을 취하는데 교강사가 미배정일 경우 이와 관련해 연락을 취할 곳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게 된다. 이에 B 씨는 “이번 학기 증원 담당처가 명확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우리학교의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인공지능과 프로그래밍 영역의 강의 또한 교강사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학교 교양 필수 강의인 컴퓨팅사고 강의는 교강사 초빙 실패로 강의 하나가 폐강됐고 수강신청 이후 한 개의 강의 시간이 변동되기도 했다. 즉 교강사 부족 문제는 AI 융합전공의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학교 모든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다.

독일어교육학과(이하 독교)도 마찬가지로 교강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실제로 일부 교과목이 교강사를 구하지 못해 폐강됐다는 제보가 잇달아 이어졌다. 독교 학생회는 관련 질의에 “교강사 부족으로 인해 수강 가능한 교과목의 선택지가 적다”며 “설캠에 위치한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강의 중 일부를 글캠 소속의 교수가 맡는 상황과 학과 교육과정 상의 교과목 수가 줄어드는 것을 통해 교강사 부족을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형욱 독교 학과장(이하 신 학과장)은 “이번 학기 교과목 폐강의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적었다는 이유로 존재하지만 강사 선발이 늦어졌던 것도 사실이다”고 전

했다. 또한 “수요가 높은 교과목의 경우 담당할 수 있는 전임 교원이 부족하다”고 추가적으로 전했다.



▲우리학교 설캠 강의실 모습

◆교강사 부족의 원인

먼저 AI 융합전공의 경우 관련 학계가 전반적으로 교강사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서울권 대학 32곳 중 전문대학교와 신학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공학 계열 법정 전임교원 충원율은 70%로 인문·사회(98.3%)·자연(99.06%)계열보다 30%p 가까이 낮았다. 실제로 중앙대학교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강의가 교강사 구인난으로 인해 폐강문제를 겪고 있다. 이는 우리학교를 포함해 많은 대학들이 최근 인공지능 관련 학과 또는 단과 대학을 경쟁적으로 신설·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교수들에 대한 처우는 비교적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AI 융합전공 사무실은 “기업에 가면 훨씬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우리 전공의 교강사가 될 정도의 유인책이 부족하다”며 교강사 섭외와 관련한 고충을 토로했다.

이렇게 학계 전반적으로 교원이 부족한 가운데 인문학 중심의 우리 학교가 갖는 인공지능 관련 학문에 대한 강점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지난 3월 22일에 공개된 ‘2023 QS 세계대학 학과별 순위’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는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제공하는 전 세계 대학 순위표로 이 중 컴퓨터공학 및 정보시스템 분야 순위에 우리나라 대학 중 18개가 이름을 올렸으나 그 중 우리학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AI 융합전공 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자체적인 전임 교원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즉 전임 교원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임금 또한 기업체에 비해 턱없이 낮고 우리학교도 학문적 강점이 두드러지지 않아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관련 학문 전공자들이 우리학교 강의를 맡을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독교의 경우 학생들의 수요 및 전공 적합도와 맞지 않는 전임 교원들이 그 원인이다. 독교는 △교과교육학△교과내용학△독일어학습과정 세 개로 이뤄진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 학과장은 “전임 교원 세 명 중 수요가 높은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을 담당할 수 있는 내국인 전임 교원은 한 명 뿐이다”며 “외국인 교수가 담

당하는 수업에 비해 내국인 교수가 담당하는 수업의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교원 비율은 외국인 교수가 더 높은 것이 학생들이 교강사 부족을 느끼는 원인이다”고 밝혔다. 즉 수요가 높은 교과목을 주로 담당하는 전임 교원이 적어 교강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인공지능과 프로그래밍 관련 교강사의 충원은 다른 분야에 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이는 다음 해에 AI 융합대학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현재 AI 융합전공은 이중전공으로만 선택할 수 있는 융합전공 중 하나지만 해당 대학은 정식 단과대학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규모 또한 확대되므로 교강사 충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현재도 관련 분야의 교강사 충원이 어렵다면 신설되는 해당 단과대학의 교강사 충원 또한 원활하게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른 대학보다 더 빠른 시기에 교강사 충원을 진행해야 한다. 교강사 지원자들이 임용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자들은 여러 곳 지원하게 된다. 조병덕 교무처 교무행정팀장은 “임용·초빙을 늦게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이를 일찍 진행하는 학교에 비해 고려사항에서 제외되기 쉽다”며 “이는 교수들 또한 조건이 비슷하다면 빠르게 자신의 임용을 확정 짓는 학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학교 측은 2024학년도 1학기 교원 충원 계획안을 최대한 빠르게 확정하는 등 신속히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교의 경우 수요가 적은 외국인 전임 교원의 수를 줄이고 수요가 많은 교과목을 담당할 내국인 전임 교원의 수를 늘리는 등 수요와 부합하는 전임 교원 임용이 이루어지는 게 시급한 실정이다. 신 학과장은 “추후 내국인 전임 교원 2인과 외국인 전임 교원 1인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강사 섭외 또한 전공 적합도를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진행해 학생들이 교강사 부족에 관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강사 부족 문제는 학생들의 교육 및 우리학교 연구 실적 증진에 있어 중대하게 다뤄지는 사안인 만큼 일부 분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학교 구성원 모두의 문제로 파악된다. 특히 다음 해에 새로 신설될 AI 융합대학의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우리학교 모든 구성원의 고민이 절실하다.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 바람직한 학사 제도일까

우리학교는 현재 재수강 학점을 최대 21학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선 일부 학생들이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우리학교의 재수강 제한 제

도가 학생들의 학점 복구에 제약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학교 재수강 학점 제한 현황△재수강 학점 제한에 대한 엇갈린 목소리△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우리학교 재수강 학점 제한 현황

지난 2020년부터 우리학교 학생들 사이에선 재수강 제한 제도에 관한 불만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우리학교는 지난 2020년 2학기부터 계절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 학점 기준 최대 재수강 가능학점을 18학점에서 21학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또한 최초 수강에서 취득한 성적이 C+이하인 경우에만 재수강이 가능하고 재수강 시 평점은 최대 A0까지 취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학교의 전체 졸업학점 대비 최대 재수강 가능 학점의 비율을 참조하면 우리학교의 재수강 학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경희대학교의 경우 3학점인 수업을 학기당 2과목씩 학기당 첫 학기를 제외한 7개의 학기에 걸쳐 모두 재수강할 시 해당 비율은 35%로 산정된다. 국민대학교의 경우 120학점 중 8과목 제한으로 이는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강대학교는 126학점 중 8과목 이내로 제한하며 전체 졸업학점 대비 최대 재수강 가능 학점의 비율은 19.04%다. 연세대학교는 126학점 중 4과목 제한으로 9.52%의 비율이 나타난다. 반면 우리학교는 134학점의 졸업학점을 기준으로 할 때 15.6%의 수준으로 졸업학점에 비해 재수강 학점 수가 많지 않다. 또한 우리학교는 재수강 시 최대 A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나 △경희대△국민대△서강대△연세대의 경우 각각 △A-△B+△A-△A0를 상한선으로 정해두고 있다. 이렇듯 대학마다 성적을 두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 2014년 교육부는 재수강 여부 표시 및 학점 포기 제도 폐지 등 다양한 방침을 내놴다. 그러나 이후에도 재수강 학점에 제한을 두는 대학과 제한없이 재수강이 가능한 대학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우리학교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를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둘러싸고 학생과 학교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재수강 학점 제한에 대한 엇갈린 목소리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를 두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은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높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점으로 주장한다. 취업시장에서 타 대학 학생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높은 학점의 유익은 결코 작지 않다. 이에 구동한(중국·중언문 17) 씨는 “이미 재수강 기회를 소진했는데 이중전공 수업이 계절학기에 열리지 않아 재수강을 하지 못한다”며 “비교적 재수강 기회가 많은 타 대학 학생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는 전공마다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강좌 수가 상이하다는 점과도

연관돼 있다.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강의는 재수강 학점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에 계절학기에 많은 강의가 개설되는 학과 학생의 경우 실질적으로 21학점을 초과해 재수강이 가능하다. 반면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강좌 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은 정규학기에만 재수강이 가능해 학점 제한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는 실정이다. 현존하는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가 우리학교 학생들 사이에서의 공정성에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즉 우리학교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학과들은 계절학기가 아예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계절학기 개설이 원활히 이뤄지는 학과에 비해 불리한 입지에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학

이전 취득성적		C+ 이하 인 과목
재수강 학점 제한		재학 중 총 21학점 (계절학기 제외) ※ 2016-1학기부터 재수강 학점 산정 ※ 2020-2학기부터 재수강 가능학점 상향(18학점 → 21학점)
재수강 취득성적 상한		A ⁰
재수강 신청방법		수강신청 시 “재수강” 체크 후 수강신청
이전 성적 연결		재수강과목 연결 기간 내 재수강 과목과 이전 성적 연결 ※ 기간내 연결하지 않을 경우 1/4선 경과 시점 재수강 신청 자동 취소(초수강으로 변경)
이전 성적 삭제	정규학기	수업일수 3/4 선 경과 후
	계절학기	당학기 성적취득 후
재수강 성적 취득		학기 말 수강한 과목 성적이 당학기 성적으로 등재

▲수강편람에 명시된 재수강 학점에 제한을 둔 우리학교의 학사제도 (출처: 2023 1학기 우리학교 수강편람)

점 인플레이션(Inflation)현상과 재수강생과 초수강생 사이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백은울(응인 23) 씨는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가 폐지되면 사회에서 바라보는 우리학교 학점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질 것이다”며 “만약 재수강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거나 없어지는 등의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다면 재수강으로 취득 가능한 학점을 최대 B+로 하향하는 등 새로운 제한이 부가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재수강생과 초수강생의 형평성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겐 발생하지 않는다. 다수의 우리학교 학생은 초수강 시엔 상대평가 방식에 따라 성적을 취득하나 재수강 시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성적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수강 시에도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유학생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최선웅(경영 18)씨는 “주변 유학생 중 언어장벽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며 또한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가 폐지되면 앞으로 일부 유학생이 고통을 겪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우리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는 학생들이 정규학기에 충실히 임하게 하기 위해 재수강 학점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종지는 △재수강을 위한 추가학기 등록 학생 수△재수강 시 학점△재수강 학점 분포△재수강 횟수 등 여러 지표를 고려할 때 현재 우리학교 재수강 관련 제도가 적정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 폐지와 관련해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세 가지 요소는 △형평성△수업 분위기△학점 인플레이션이다. 교수들은 한 수업에 초수강생보다 재수강생이 많을 경우 성적 평가의 형평성을 기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로 인해 혼란한 수업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재수강자들은 초수강자에 비해 느슨한 성적 평가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를 폐지할 경우 초수강생과 재수강생의 비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재수강생이 과도한 비율을 차지할 땐 분반을 개설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학점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선 재수강 횟수 자체에 제한을 뒀아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또한 나리나(국제지역·프랑스 20) 씨는 “재수강 제한 제도를 철폐할 시 재수강 횟수에 제한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학점 남발로 인해 무법 상태와 같은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학교의 경우 재수강 학점 제한에 대한 제도는 존재하나 특정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횟수는 제한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 역시 고려돼야 균형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학교 측에선 학생들로 하여금 정규학기에 충실히 임하기 위해서 재수강 학점 제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현재 재수강 제한 제도가 학습권에 끼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따라서 학사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선 제도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더불어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공정한 성적 평가 기준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한 사항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우리학교 학종지 측에선 “이미 지난 2019년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에 대해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난 2020년 재수강 학점을 상향한 바 있다”며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수강 21학점이 부족하지 않고 추후 사정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은 없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에 관한 학내 구성원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균형있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수업을 듣는 학생들△학사 제도를 관장하는 학사종합지원센터 등의 입장을 고려한 바람직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의 중심지 뉴욕

지난 학기 7+1 파견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스톤브룩(SUNY Stonybrook)에서 공부했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항상 외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삶을 꿈꾼 난 오랜 노력 끝에 오르게 된 미국 행에 대한 기대가 컸다. 뉴욕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다. 미국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도시이며 문화 측면에 있어 세계의 수도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공연예술의 탄생지인 브로드웨이(Broadway)가 위치한 것 역시 한 몫 했다.

미국에선 학습보다도 문화 교류와 체험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선택했다. 전공 과목으로 △동양 예술학 △미국 문화의 이해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이해 수업을 들으며 이중 전공 과목으로 영화 영상 제작 입문을 수강했다. 수업 시간과 구성은 우리나라와 비슷했지만 방식에 있어 큰 차이가 있었다.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수업은 절대평가 방식과 다양한 조별 과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다.

수업이 없는 날이나 주말엔 가차로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맨해튼(Manhattan) 시내에서 시간을 보냈다. 뉴욕주 소속 대학 학생증이 있다면 맨해튼 내에 있는 다양한 박물관과 미술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뉴



욕 현대 미술관과 휘트니(Whitney) 미술관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시품을 마음껏 관람할 수 있었다. 내가 뉴욕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한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브로드웨이 역시 자주 방문해 6개월 동안 총 15편의 뮤지컬 작품을 감상하기도 했다. 추첨을 통해 할인된 가격에 뮤지컬을 볼 수 있는 로터리 티켓(Lottery Ticket)이나 공연 당일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러시 티켓(Rush Ticket)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접하고 공연에 대한 인목을 키울 수 있었다.

1학기 교환학생의 가장 큰 장점은 봄방학이다. 지난 3월 중순경 1주일 간의 봄방학을 이용해 올랜도(Orlando)와 마이애미(Miami)로 여행을 떠났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놀이공원인 디즈니 월드(Disney world)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올랜도(Universal studio orlando)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마이애미 해변에



서 뜨거운 초여름을 즐겼다. 학기가 끝난 후엔 두 달 동안 혼자 미국 서부를 여행했다.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해외여행에 두려움과 외로움이 앞섰지만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며 소중한 추억이 됐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국가인 만큼 여러 문화를 동시에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총기 사고나 마약 문제 등 위험한

부분도 존재하기에 위험한 감사가 보이면 즉시 자리를 옮기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찰과 군인이 주위에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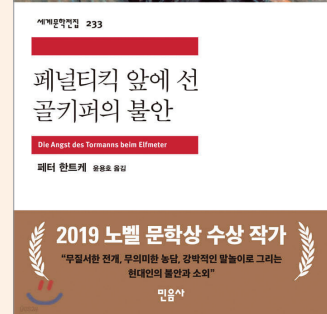
180여일 간의 여정 동안 처음 겪어본 상황에 당황하고 힘들었던 순간도 존재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던 건 아닌지 약간의 아쉬움도 남는다. 그러나 이번 학기를 통해 내 전공어인 영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고 영어에 노출되는 경험이 대폭 늘어나며 자연스러운 표현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문화 예술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혔다. 이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다시금 확인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몸소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김자우(영어 · EICC 21)

독일

<페넬티키 앞에 선 골키퍼의 불안>

- 소통이 부재한 현대사회의 단면 -



현대인의 불안은 궁극적으로 소외와 고립에서 비롯된다. 소외와 고립의 징후는 의사소통의 실패에서 드러난다. 의사소통을 위해선 당사자 사이에 암묵적으로 전제되고 공유되는 공통의 의미와 경험의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다변화되고 복잡해진 현대사회의 양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미는 점차 협소해지고 소통의 기반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독일 작가 페터 한트케(Peter Handke)의 <페넬티키 앞에 선 골키퍼의 불안> 역시

소통 불가능성과 그에 따른 소외와 고립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블로흐(Bloch)는 세상과 단절되고 고립된 생활을 영위하는 인물이다. 건설 현장에서 조립공으로 일하는 주인공은 어느 날 현장 감독의 눈빛을 해고의 표시로 받아들이고 공사장을 떠난다. 해고를 당한 이후 블로흐는 영화관에서 우연히 만난 매표소 여직원과 하룻밤을 함께한다. 이어 그녀가 주인공에게 오늘 일하러 가지 않냐고 묻자 주인공은 이를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이해하고 그녀를 살해한다. 한편 작품 어디에서도 이러한 주인공의 인식이나 판단에 대한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타인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 타자에 대한 공감은 성립할 수 없다. 소설 전반을 관통하는 정서가 철저한 무감함인 까닭도 여기에 있다.

주인공을 둘러싼 주변 인물에게서도 의사소통이 실패하는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택시 운전사가 팔을 높이 드는 블로흐의 행위를 승차의사표시로 오해하고 정치하는 장면이 그 사례다. 뿐만 아니라 '가시오(Geh weg)'와 '인도(Gehweg)' 등 유사한 단어 사이의 혼동이 의사소통의 실패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언어 그 자체가 가진 역할에 주목한다. 동일한 대상이나 단어에 대한 각자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언어의 의미에 집착하는 것은 호소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미를 타자에게 강요하는 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는 언어의 의미나 내용보다 언어의 형식성으로 돌아갈 것을 시도한다. 이와 같은 환원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다시 공통의 의미와 소통의 가능성을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의미를 잃고 방황하며 타인에게 냉담한 블로흐의 모습은 소외와 고립을 경험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닮아있다. 문득 외로워지는 날이면 <페넬티키 앞에 선 골키퍼의 불안>을 읽으며 유쾌한 언어유희와 함께 블로흐의 처지에 감정을 이입해 보는 것은 어떨까.

송성윤 기자 06sysong@hufs.ac.kr

2023년 정기시험 안내

국내 최초,
최대 7개 언어 국가공인 인증(듣기·읽기)

FLEX^로
플렉스
할래?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수년간의 개발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자격정보 안내 <http://flex.hufs.ac.kr>

1. 2023년 FLEX 정기시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 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4회	10.05~10.11	11.05	11.24(금)	12.08(금)

※ 원서접수 마지막날의 마감시간은 18:00입니다.
※ 고사장, 응시 과목에 따라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LEX 듣기·읽기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민간자격이며, 말하기, 쓰기는 등록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응시자격 : 제한없음

3. 평가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1개 언어 선택 응시 (동시에 2개 언어 응시 불가)

4. 원서접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접수 가능
<http://license.korcham.net>

5. 응시료 : 듣기·읽기 45,000원, 말하기 75,000원, 쓰기 75,000원
▶ 접수 수수료 : 1,200원
▶ 수수료 환불규정 : 접수 기간 내 100% 환불 접수마감 이후~시험일 5일전 50%환불, 접수 수수료 환불 불가 시험일 4일전 이후 환불 불가

6. 결과발표

▶ 확인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http://license.korcham.net> (문의) 02-2102-3600
▶ 성적유효기간 : 시험일로부터 2년

7. 참고사항

재학생 IBT FLEX(영어, 중국어) 응시 자격 : IBT 시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FLEX 정기시험(해당 언어)에 응시한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귀향길 교통편 부족 문제, 즐거운 연휴를 위해선

이번 해 추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추석 승차권 예매가 지난달 29일 부터 시작됐다. 추석 승차권 사전 예매 당시 표를 예매하지 못한 학생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제주 노선 항공편이 거의 만석 상태를 보여 이에 많은 학생

들은 난항을 겪고 있다. △귀향길 교통편의 현황△교통편 부족에 따른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기사를 통해 알아보자.

◆귀향길 교통편의 현황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명절 기차표 예매는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됐으며 엔데믹 선언 이후 처음 맞이한 이번 추석에도 비대면 예매가 지속됐다. 지난달 31일에 정부가 오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휴일 동안의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교통편 예매 경쟁률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특히 제주행 항공권은 연휴 3달 전부터 예약이 마감되는 사례가 많았고 연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는 항공편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제주도 내 한 여행사 관계자는 “귀성 인파는 물론이고 연휴가 다가올수록 해외 대신 제주를 택하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좌석난 심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무궁화호△TX-새마을△KTX 등을 대상으로 추석 승차권 사전 예매를 진행했으며 수서고속철도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SRT 승차권 예매를 시작했다. 예매 첫날엔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등 정보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전 예매가 진행됐고 그 이후엔 모든 국민이 예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기차표 예매율은 최종 결제가 된 표 기준으로 각각 귀성 예매율 86%와 귀경 예매율은 79.4%를 달성했다.

항공권의 경우 추석 연휴 두 달 전부터 매진일 때가 많다. 특히 엔데믹 이후 처음 맞는 연휴로 국내의 여행 수요가 늘어나며 국내선 노선의 잔여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예년 명절 오후보다 80~90% 더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이스타(Eastar)항공은 지난달 기재 여력을 활용하며 항공기 208편을 임시 증편해 제주 노선에 투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포-제주행 표는 거의 매진이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인 10월 2일과 3일에도 제주에서 김포로 돌아가는 항공편이 일부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곤 예약이 마감된 상태라고 전했다. 기본적으로 제주의 지리적 특성상 귀성객이 교통수단으로 항공기를 선택하는 데다 추석 연휴 여행객까지 더해지며 좌석난을 부추기고 있다.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또한 마찬가지다. △대구△부산△울산행 표는 약 80%가 매진된 상태고 잔여석 또한 적게 남아있다.

◆교통편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코로나19로 인해 명절 기차표 예매가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용 불편 문제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일에 진행된 SRT 승차권 예매에선 예매 방식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혼란을 겪은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대면 창구를 열어둬야 할 것을 조언했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31일에도 오전 7시에 열리는 예매 창을 두고 대국민 티켓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

연휴 전날까지 강의를 들어야 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우려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서진(통번역·스페인어 23) 씨는 “이번 명절 기차표 잡기에 실패해서 분가로 돌아가는 계획 자체를 취소했다”며 “이번 추석이 황금연휴라 기뻐했는데 정작 분가에 가질 못하니 낙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매년 명절마다 열차 승차권을 예매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예약 부도 건수는 7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연휴 때마다 열차표를 구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반면 정작 기차 내부는 비어있는 상태로 운행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추석 명절 연휴 승차권을 예매했다가 출발 전후로 취소 및 반환하는 예약부도 건수는 △2020년 66만 8,080건△2021년 69만 5,246건△2022년 167만 6,530건으로 확인됐다. 한국철도공사는 매년 70만 건에 달하는 예약부도의 주요인을 고객의 단순 변심 및 타 교통수단 이용으로 분석했다.

추석 연휴를 한 달 앞둔 현시점에선 항공권 또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은 “추석 연휴 김포-제주 노선은 사실상 매진됐으며 평균 국내



▲이번 추석 귀향버스 노선 안내 (출처: 우리학교 학생복지위원회)



▲이번 추석 귀향버스 일정 안내 (출처: 우리학교 학생복지위원회)

선 예약률이 80%대다”고 밝혔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엔 1~2대 정도 제주 노선에 임시편이 투입됐지만 올해는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항공사들은 운항 편수를 늘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공항 측에서 안전한 운영을 위해 운항 항공기 수를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항공사들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임시편 운항도 검토하지 않고 있어 추석이 다가올수록 승객들의 항공기 쟁탈전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귀향하지 못하게 된 학생들이 속출하는 외증 외대 학보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귀향길 교통편 부족 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권 학생들 중 승차권·항공권을 예매하지 못한 학생이 81.8%에 달했다. 또한 중복 응답을 허용한 설문에서 이들은 △연휴 직전 수업을 결석하고 갈 것(72.7%) △다른 교통편을 구해볼 것(54.5%) △분가에 가지 않고 학교 근처에 남을 것(54.5%) 등이라 답했다. 남연우(동유럽·체코어 23) 씨는 “추석을 앞두고 고향인 제주를 방문하기 위해 항공권 예매 사이트를 살펴봤을 때 적절한 시간대는 이미 마감됐고 남은 항공권 가격도 편도 10만 원대로 높게 형성됐다”며 “추석 연휴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표를 구하기가 힘들어 허탈하다”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전문가들은 비대면 예매가 지속될 경우엔 온라인 접근권을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순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소한의 오프라인 창구를 마련해 놓고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경우 전화를 통해 예매가 가능함을 홍보하고 있다”며 “지난 2020년 이후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해 왔으나 향후 다시 대면 예약을 진행할지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예약부도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대해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승차권을 구매할 때 예약부도 관련 주의사항을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해는 아직 승차권 예매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지만 예약부도를 막을 뚜렷한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예약부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교에선 학생들의 귀향길을 위해 귀향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건국대학교는 △대구-창원△대구-울산△대전-목포△원주-강릉△천안-광주△청주-전주△포항-부산 등 총 7대의 우등버스를 준비했다. 우리학교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 측도 귀향버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추석 귀향버스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김세운 우리학교 학생복지위원장은 “지난해엔 예산 문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이번 해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복위와 함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대한 더 많은 노선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귀향버스 탑승 신청은 이번 달 13일에 구글 폼(Google Form)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강형우(아시아·이란어 23) 씨는 “국가 차원에서 교통편이나 항공편을 좀 더 증편했으면 좋겠다”며 “학교 차원에서 귀향버스 노선 확대라든지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운영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학생들의 마음 편한 귀향길을 위해 정부와 교통 업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거듭된 교권 침해,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현장을 위해선

지난 7월 23일 서울서이초등학교(이하 서이초) 소속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일부 학부모에 의한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위력 행사 등의 교권 침해가 원인이 돼 벌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엔 양천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교권 침해가

빈발하며 교권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생 인권과 교권 사이의 적절한 타협점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교권 실태△교권 침해의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교권 실태

지난 7월 23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서이초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어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위력 행사가 있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사건을 둘러싼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는 사건이 벌어져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가 소집됐다. 지난 3일엔 경기 용인시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선 최근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지난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최근 67개년 중 최고치인 520건으로 드러났다.

교권 침해는 그 유형과 양태에 있어 다양하게 나타난다. 교총이 지난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온라인으로 교권 침해의 유형과 실태에 관해 조사한 결과 접수된 11,628건 중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57.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급전직 여유가 없어 체험학습 중 간식을 사지 못하는 초등학생에게 밥을 사줬다가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으며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거나 특정 신용카드 가입을 강권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됐다. 또한 학생의 문제 행동을 저지하거나 책상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무고성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 역시 최근 빈발하는 교권 침해 현상의 특징적인 양상이다. 실제로 교총이 진행한 앞선 조사에서 교권 침해의 주체에 따른 비율은 학부모와 학생이 각각 71.8%와 28.2%로 집계됐다.

이러한 교권 침해로 인해 현재 교사들이 경험하는 피해도 상당하다. 지난 4월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조합원 11,3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7%의 교사가 최근 1년 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5년 간 교권 침해로 인해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는 26.6%에 달하고 있었다. 지난해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접수된 심리상담 건수도 약 2만 건에 육박했다. 이에 더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사 중 5.7%는 실제로 교직 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되거나 피소된 경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권 침해의 원인

이처럼 교원에 대한 교권 침해가 심화되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현행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아동학대의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 아동학대 혐의의 적용을 선제적으로 배제하는 명시적인 면책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무고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도 부재했다. 지난 3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교사 A씨는 “무엇이든 아동학대가 될 수 있기에 윤이 나쁘면 고소까지 당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일부 학부모에 의한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교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교원 22,0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7.7%가 아동학대 신고 남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부모가 제기하는 각종 민원을 교사 개인이 오롯이 전담해 처리해야 하는 민원 대응체계도 문제다.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단순반복성 민원△야간 민원 등을 포함한 모든 민원이 별도의 담당 기관이 아닌 교원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무분별한 악성 민원을 부추겨 교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지난 7월 전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선 28.6%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대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민원 발생의 책임이 온전히 교사들에게 부과돼 있다는 점을 여실히 증명하는 대목이다”며 민원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교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선 교육부의 설문조사에선 25%의 응답자가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았다. 실제로 지난해 1월 교육부가 발간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르면 교보위에서 심의·의결된 징계처분에 대해 피해교원이 불복하고 더 가중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한 상당수의 교권 침해가 학부모에 의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징수나 사회봉사 부과 등의 처벌규정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에 대해서 교육활동 침해를 처벌하는 조항이 세밀하게 존재하는 반면 학부모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사과 권고가 전부이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지난달 23일 교육부는 이와 같은 교육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이하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종합 방안엔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제정하는 등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해당 고시를 바탕으로 학생 인권의 보장에 만 치중된 기존의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학생의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에 관한 조항을 보완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달성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종합 방안에 담겼다. 이에 따르면 향후 아동학대 수사를 개시하기에 앞서 수사기관은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실질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교원의 직무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와 엄격히 분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이 다.

종합 방안엔 교보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해법도 포함됐다. 피해 교원의 요청만으로도 교보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요건을 기존에 비해 완화하고 교보위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조치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교보위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처분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제재규정도 강화됐다.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서 그 이력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이에 더해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권침해 유형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서면사과△재발방지서약△특별교육 이수 및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제재규정도 도입된다. 또한 교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도록 민원을 대 체제 개편도 추진됐다.

한편 이러한 종합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별도의 민원 대응팀 창설은 기존에 교사에게 향하던 악성 민원을 대응팀 등의 교육공무직에게 전가시킬 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또한 교사에게 제기된 민원 중 공무원이 응대하기 어려운 내용의 민원인 경우 결과적으로 해당 교사가 개입해야 하기에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권 침해 사실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침에 대한 한계도 거론됐다. 생기부 기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대상은 일부 고등학생에 국한되므로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기재의 적부에 관해 자칫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존재한다는 논지다.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 4일엔 서이초 교사에 대한 추모와 더불어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전국적으로 전개됐다. 이날 일부 교사와 초등학교에선 △공가△병가△연가△재량휴업 등의 수단을 사용해 우회적인 파업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2일 개최된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선 당초 예상 인원이었던 20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약 35만 명의 인원이 운집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교사 집회로 평가됐다.

한편 해외에서도 교권 침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와 교육구마다 상이하지만 교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위스콘신주(Wisconsin)에선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사단체가 피해 교원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법원은 피해 교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에 대해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발령하거나 전학 처분을 부과하기도 한다. 일본에선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교원의 정신질환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자 지난 2013년부터 상담 체제를 확충하고 교직원이 경험하는 문제를 조기에 파악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서로 모순되거나 택일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인 구도로 이해하고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법을 학생 인권의 축소에서 찾는 태도는 경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를 달성해 모두의 권리가 보장받는 교육현장을 실현하기 위한 심층적이고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다.

송성윤 기자 06sysong@hufs.ac.kr

www.사사한줄토익.com

정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여야 반응 갈려

지난 8월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는 교정 내 홍범도 및 독립운동가 5인에 대한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경력을 이유로 흉상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홍범도 장군은 지난 1921년 9월 스스로 고려공산당 간부라고 밝혔다”며 육사의 흉상 이전에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흉상 철거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다”며 육사의 결정에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다.

사회 육군 ROTC 경쟁률, 역대 최저 지원을 달성해

올해 상반기 학군사관(이하 ROTC) 후보생 지원 경쟁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4일 육군은 올해 상반기 ROTC 지원율이 1.6대 1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경쟁률 하락의 원인으론 △병사 복무기간 축소△병사보다 낮은 봉급△초급간부에 대한 처우 문제 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ROTC 뿐만 아니라 △육·해·공군사관학교△육군 제3사관학교△학사장교 경쟁률도 모두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러한 상황이 국방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사회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경제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 정부 15조 예산 편성해

지난 4일 대통령직속기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 위원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해 예산에 15조 4천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저출산 위원회는 △돌봄과 교육 1조 3천억원△일·육아 병행 지원 2조 2천억원△주거지원 9조원△양육비용 부담 경감 2조 9천억원△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50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거 면에선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주택구매 자금 대출 기준을 현행 기준인 7천만 원 이하에서 1억 3천만 원까지 대폭 완화했다. 일·육아 병행을 위해선 육아휴직급여기간을 현행 기준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서도 일·육아 병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업무분담 지원금 20만원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제 1년 남은 미국 대선, 공화당 1위 후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를 약 1년 2개월을 남겨둔 상황 속에서 공화당의 대선 후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현재 여론조사에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이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국 여론조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웃돌며 2위와 3위 후보자들의 지지율인 각 15%와 8%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 공화당 대선 후보에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선

지난 1일 법원은 머지플러스(Mergeplus) 측과 대표 권남희와 회사에 2억 2,500만 원을 머지포인트(Mergepoint) 사태 피해자 143명에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지난 2021년 8월 11일 머지포인트 운영사가 머지포인트의 운영 축소를 발표하며 발생했다. 해당 발

표 이후 머지포인트는 더 이상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결국 머지포인트를 구매했던 이용객들과 머지포인트로 결제를 했던 가맹점이 큰 손실을 입었다.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의 △전개 및 현황△원인과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자.

◆머지 포인트 사태의 전개 및 현황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가 개발해 운영한 할인 애플리케이션이다. 지난 2017년 10월에 등록해서 가맹점을 꾸준히 늘려가는 데 성공한 머지 포인트는 이내 2만여 곳에 이르는 다양한 구매처에서 할인 혜택을 얻는 데 사용됐다. 또한 대형마트나 편의점과의 제휴에도 성공하면서 전자화폐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초기에 머지포인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8만 원 상당의 머지 포인트 구매 시 이를 시중에서 10만 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 상시 20%가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할인권은 상시 판매가 아닌 한정된 수량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할인권 한정 판매가 시작되면 서 이를 대량으로 구매했다. 이후 머지포인트는 할인율을 더 높은 구독 서비스까지 출시해 더욱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누적 회원 100만 명에 일일 평균 접속자 20만 명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성장하던 머지포인트는 지난 2021년 8월 11일 법률상의 문제를 이유로 서비스 축소를 발표했다. 그 여파로 주요 사용처였던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의 결제도 갑작스럽게 중단됐다. 또한 가맹점은 지속해서 줄어들었고 머지포인트를 사용해 발급받은 기프티콘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소비자들은 물론 머지포인트를 이용해 거래를 하던 가맹점들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

사태가 벌어진 이후 머지플러스 측은 “법률상의 문제를 해결하면 머지포인트는 다시 판매가 재개될 예정이다”라며 “연간권 머지플러스 캐시백은 정상 지급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 대해선 결제금액의 90% 이상을 환불해 줄 수 있는 자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일부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며 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항의하자 선결제 금액 중 60% 정도의 금액만을 환불받는 조건으로 협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결국 머지플러스 사옥 앞은 돈을 받기 위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에 머지포인트 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불을 병행했지만 불완전한 환불정책으로 인해 중복으로 환불 받거나 환불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2021년 8월 18일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머지플러스 핵심 경영진인 권보근 씨와 권남희 씨 남매에게 서울남부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이들에게 약 60억 원을 추징할 것을 선고했다. 권 씨 남매는 항소했지만 지난 6월 재판부는 2심에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한 피해자 143명이 제기한 민사 재판에서 △권보근 대표△머지서포터 법인△머지플러스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2억 2,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머지 포인트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

머지포인트 사태의 원인으론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경영진의 횡령과 배임△불분명한 사업 모델이 꼽힌다. 머지플러스의 전신인 머지홀딩스의 지난 2020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당기순손실은 135억 9,000만 원에 달했다. 이 기간 이익잉여금의 적자로 결손금 191억 원과 312억 1,000만 원에 달하는 부채가 발생했다. 이 중 머지포인트로 인한 부채만 307억 원으로

보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태 개선을 위한 별도의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한편 머지포인트 사태 발생 전 경영진이 회사의 예산을 횡령해 고급 승용차를 매입하고 고급 호텔방을 계약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경영자인 권 씨 남매가 가족 명의로 약 5억원 가량의 머지포인트를 횡령했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전자지급 수단 발행업자 미등록 운영 혐의로 전·현직 경영인 3명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머지 포인트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고객이 연간 구독권을 구입할 경우 이에 대한 원금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간권 18만 원을 결제하면 머지포인트 측은 소비자에게 매달 15,000원 씩 원금의 100%를 머지포인트



▲머지 포인트 앱 로고

트와 제휴한 기업의 전자 화폐로 지급하고 그 후 구독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지급해준다. 게다가 머지포인트와 제휴한 200개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20%를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지속적으로 머지포인트 측에 손실을 누적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머지포인트가 판매한 연간권은 약 1,000억 원인데 반해 머지플러스의 자본금은 약 30억 정도로 상당히 작은 규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 연간권을 계속해서 판매해 그 금액으로 손실액을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됐고 없었고 결국 한계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사태 이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머지포인트를 아직 이 사태에 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집단적으로 모의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들은 아직 머지포인트 사태를 인지하지 못한 매장에 찾아가 대량으로 머지포인트를 사용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머지포인트를 화폐의 대응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머지포인트가 지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거래 상대방에게 고지한 것이다”며 “머지포인트가 화폐로서의 가치를 잃은 상황에서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상품 거래를 진행했다면 상대를 기망한 것으로 간주돼 사기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국가 차원에서의 예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머지포인트와 같은 사업구조를 가진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에 대한 법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에 지난달 24일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다음 해 시행되는 이 법안은 선불 충전금으로 운용되는 회사의 경우 고객의 충전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강제한다. 또한 회사 파산이나 서비스 종료시 고객이 안정적으로 충전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선불업에 대한 허가 기준을 높여 검증된 사람만이 선불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더불어 가맹점 운영축소처럼 고객한테 불리하게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고객에게 선불 충전액 잔액 전부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 역시 명시됐다. 하지만 머지포인트의 경우 결제금 환불에 대한 변제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사건이 일어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머지포인트를 환불받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받았다는 커뮤니티 인증글이 게재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전체 고소사건 중 37.87%를 사기죄가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사기범죄는 결코 적지 않다. 때문에 계속되는 사기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기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사기범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해외의 경우 이런 사기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불공정 거래자에게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몰수한 부당 이득액을 포함한 수치다. 한편 72조 원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버나드 매도프(Bernard Madoff)에겐 징역 150년 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금융계는 이러한 강력한 처벌이 금융사기

범죄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성희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선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는 걸 증명하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 처벌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위반 행위와 부당이득 간 인과관계에 대해 추정 조항을 두는 등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본 시장의 신뢰성 확보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요소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상호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 시장의 신뢰가 무너져 발생한 대표적인 예시로 IMF 외환위기가 있다. 이는 신뢰 붕괴로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끊겨 빛어진 일이었다. 머지포인트 사태와 유사한 지난 2022년 루나(LUNA) 대폭락 사태는 한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려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투자회사들에 큰 손실을 입혔고 같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을 루나 사태 이전보다 40% 가까이 하락시켰다. 이러한 사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를 교훈 삼아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더 성장하는 내가 되기 위해선

얼마 전 외대학보 개강호가 무사히 발행됐다. 학교 곳곳에 비치된 신문을 접하니 웬지 모를 뿌듯함이 들었고 한 호수를 발행하기까지 학보 구성원의 노력과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으로 밤을 새며 조판 하는 일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다. 밀려오는 졸음에 눈이 감기기도 하고 수정을 거듭하다보며 내 글쓰기 실력을 한탄하기도 했다. 이렇게 힘들었던 순간이 여럿 있었지만 완성된 글을 보니 힘들 보단 뿌듯함이 더 컸다. 문득 외대학보에 들어오기 전에 봤던 면접이 생각난다. 면접 당시 학보가 수많은 이들의 노고의 산물이란 말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를 직접 실감하게 된 순간이었다.

지난 개강호에 나는 졸업학점 축소를 주제로 기사를 작성했다. 내 첫 번째 기사가 커버스토리에 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땐 부담감이 느껴지면서도 설렘. 무엇보다 외대학보에서 제일 쓰고싶었던 기사가 바로 기획기사였기 때문이다. 기사를 작성하며 학생들의 고충을 듣고 그 해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와 교무행정팀 등에 전화를 하며 취재했다. 또한 졸업학점 축소에 대한 우리학교 학우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도 진행했고 타 학교의 이수 학점과도 비교하며 내용을 구성했다. 첫 기사인 만큼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정성을 쏟았다. 기사를 완성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험난했지만 한편으론 재밌었다. 무엇보다도 온전히 자력으로 기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감이 가장 많이 요구됐던 순간이기도 했다.

학보사에 들어온 날부터 기사 작성을 포함한 모든 활동이 전부 새롭게 느껴진다. 난 평소 익숙한 것들에만 안주하고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는 성격이었다. 혹시나 일이 틀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걱정부터 앞서는 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학보 활동은 내게 큰 도전이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취재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일이었다. 또한 제안서 주제를 생각해내고 내용을 면밀하게 구성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다. 독자들이 원하는 시의성 있는 기사를 쓰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난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도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 그 자리에 정체할 것인 반면 나아간다면 내가 한층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학보에서의 마음가짐도 마찬가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보 활동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기에 내겐 무엇보다 값진 시간이었다. 비록 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도전하며 좌절하는 일들도 때론 있었지만 굳건하게 초심을 상기시키며 성장하는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이지윤 기자

[책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을 읽고] 삶과 죽음: 인생을 돌아보아야 할 때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말은 불변의 진리며 모든 사람은 태어난 이후 죽음을 향해 간다. 사람들에게 잊히고 세상에서 소멸한다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하기에 사람들은 종종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부정하기도 한다. 과연 죽음 앞에서 어떤 생각 또는 후회를 하게 될 것인가.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자연스레 맞이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루게릭병을 앓은 모리 슈워츠(Morrie Schwartz) 교수(이하 모리) 또한 죽음이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그가 보여준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죽음이란 두렵고 슬픈 것이라는 정론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모리는 어떻게 죽음을 초연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 탈피하기 위해선 우선 죽음을 인정해야 한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모리처럼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에게 언제가 찾아오는 필연적인 것이며 이를 두려워하고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죽음이 필연적이란 것을 인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이 책의 주된 교훈이다. 죽음을 수용하는 건 삶의 끝이 아닌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다.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며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하나의 단추에 불과하다.

모리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선 사랑과 더불어 자신만의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죽음을 인정한 인간은 사랑이라는 가치

를 지킬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자신이 죽어도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신을 추억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모리는 인간이 자신만의 문화를 접할 때 행복해질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사랑을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일그러진 문화 속에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이념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모리는 자신만의 문화를 가질 것을 강조한다. 자신만의 문화라고 해서 기존의 사회 통념을 무시하는 게 아닌 자신이 행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우리는 수동적인 문화에 갇혀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익숙해진 채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찰 없이 지내고 있다. 작중에서 모리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며 “그걸 믿는다면 우린 모든 행동을 다르게 했을 것이다”고 말한다. 난 우리가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죽음을 받아들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정해진 길에 갇혀 끊임없이 달려온 우린 이제 잠시 멈추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고민해 봐야 할 때다.

창형영 기자 07hwio@hufs.ac.kr

[영화 ‘애스터로이드 시티’를 보고] 허무함에 빠진 청년들에게

영화 ‘애스터로이드 시티’(Asteroid City)는 웨스 앤더슨(Wes Anderson) 감독의 코미디 영화다. 이 영화는 미국 남서부의 작은 사막 마을인 애스터로이드 시티를 배경으로 하는 가상의 연극을 다루고 있다. 이 영화의 제목인 애스터로이드 시티는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 연극의 제목이다. 애스터로이드 시티는 기존의 연극과는 다르게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새로운 스타일을 중요시하는 전위극이다. 영화의 등장인물들 대부분은 가상 연극의 배우들이다. 애스터로이드 시티 과학 경진대회를 하던 도중 이들은 외계인을 보게 되고 미 정부가 이들을 잠시 격리하면서 벌어지는 유쾌한 이야기가 연극 애스터로이드 시티의 주 내용이다. 연극 배우들은 캐릭터에 몰입한 채 연기를 이어가지만 자신이 맡은 배역의 혼란스러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에 연출가에게 다가가 자신이 제대로 연기하고 있는지 물어본 한 배우에게 연출가는 극 중 배우가 마치 연극 속 인물 그 자체가 된 것 같으며 ‘지금 이대로 좋으니 계속 연기하라’고 말하면서 배우의 연기를 극찬한다.

영화 애스터로이드 시티는 감독 특유의 촬영 기법이 잘 반영된 작품이다. 대표적으로 대칭적이고 수직적인 카메라 움직임과 고전 회화를 보는 듯한 영화의 미학적 연출이 웨스 앤더슨 감독만의 특징이다. 이 영화엔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한다. 등장인물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삶에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등장인물에 몰입하도록 의도했던 감독의 다른 작품들과 달리 이 작품은 처음부터

애스터로이드 시티의 이야기가 허구라는 것을 알려준다. 마치 관객이 등장인물에 몰입하려고 할 때마다 이것은 연극일 뿐이라며 의도적으로 몰입을 배제하려는 듯 하다. 이는 감독이 관객으로 하여금 메사지에 집중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영화에서 강조하는 교훈은 간결하다. 영화는 바로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낙관주의적 사고를 강조한다. 애스터로이드 시티라는 연극 속 인물에 몰입해 연기하던 배우는 연극의 난해한 전개와 등장인물의 행동에 의문을 품는다. 청년들의 삶도 마찬가지다. 아직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을 품는다. 박경식 평론가의 ‘화사하고 불안하고 능청스러운 낙관주의’라는 한 줄 평처럼 영화는 우리에게 불안하기도 하고 가끔 아름답기도 한 난해한 인생 속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몰입하며 자신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1인 가족 인구는 716만 명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버리고 허무함에 허덕이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영화의 울림이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크게 와닿는 이유이지 않을까?

김도현 기자 07dohyun@hufs.ac.kr

1082호 학보를 읽고

가을을 맞이하며

청명한 가을 개강을 맞이한 캠퍼스로 학생들의 한산 발걸음이 모이기 시작했다. 캠퍼스는 새로운 학기를 향해 저마다의 포부를 실현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생들의 움직임으로 가득하다. 이에 외대학보는 △늦어지는 강의실 배경△학생회비의 이용가치△졸업학점에 대한 논란△기숙사식 운영방식에 관해 지적하며 우리학교 학생들의 열정과 함께 해야 할 학교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3면에선 늦어지는 강의실 배경 문제와 학생회비의 이용가치가 제기됐다. 학생들은 강의실 간의 이동거리에 따라 시간표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연되는 강의실 배경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외대학보가 제시했듯 강의 개설 시기를 조정하고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학생들의 수업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

한편 학생회비의 이용가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이래로 꾸준히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학교의 경우 입학 시 4년 치 학생회비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부담이 존재하며 학생회비가 얼마나 실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학생회는 학생들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신뢰를 증가시키고자 학생회비의 투명한 사용을 약속하고 학생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학생회비를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외대학보가 제시했듯 학생회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종합해 학생회비가 더욱 의미 있게 이용되길 희망한다.

4면에선 졸업학점과 관련된 논란이 조망됐다. 학교 측은 연

수 학점을 줄여나갈 계획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학생 측은 격변하는 시대에 걸맞은 전공 이수 학점의 총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전공 이수 학점이 축소되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학교의 사례를 참고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다 효과적인 졸업학점 개선안이 나오길 소망한다. 더불어 학생들 개개인의 진로에 따른 전공과 대외 활동에 대한 적절한 시간 배분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더욱 풍부해지길 기대한다.

5면에선 글로벌캠퍼스의 흡스돔(UFS Dam) 기숙사식의 무화에 대한 학교와 학생들의 의견을 담았다. 학교 측에선 기숙사 식당의 원활한 운영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왔다. 또한 제한된 기숙사식 이용 시간은 학생들 개개인의 일정을 고려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재료 소진 등의 문제는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외대학보는 학교와 학생 측의 입장을 고루 대변하며 다른 학교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앞으로 기숙사식과 관련해 실시될 대책들을 통해 학교와 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학내 식생활이 이뤄지길 바란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로 봄같이부터 시작된 농사의 결실을 맺는 중요한 시기다. 이번 외대학보 1082호에선 지난 기사를 돌아보고 더 나은 우리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시사하며 우리학교와 학생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지침서로 활약했다. 우리학교가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외대학보 기자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다.

명나디(일본 · 통일지 21)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82호 학보를 읽고

이제는 또 다른 시작을 해야 할 때

약 2개월 동안의 여름방학이 지나고 다시 새 학기가 도래했다. 여름의 뜨거웠던 햇살은 서서히 저물고 가을의 선선한 바람과 날씨가 학생들을 맞이한다. 자연스레 바뀌는 계절처럼 학교에도 다양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이번 외대학보 1082호에선 새 학기를 맞이해 학교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3면에선 수강신청 시 강의실 배경이 되지 않은 경우를 지적했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백년관에서 인문경상관까진 도로로 약 21분이 소요된다. 강의사의 쉬는 시간이 10분이란 점을 고려하면 백년관에서 강의가 끝난 후 인문경상관에서의 다음 강의 시간에 맞춰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생들은 이를 고려해 시간표를 구성해야 하는데 수강신청 기간 이후 강의실이 배경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학교 측은 건물 간의 거리를 고려해 강의실 배경을 해야 하며 다른 학교의 사례를 참고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4면에선 졸업학점 축소에 관한 기획 기사를 다뤘다. 현재 우리학교는 타 학교에 비해 졸업 이수 학점이 높은 편이기에 학생들이 졸업 학점에 대한 큰 부담을 갖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 전공 이수 학점 축소를 논의 중이다. 하루빨리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졸업 학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5면에선 기숙사 학식(이하 기숙사식)의 무화에 대해 지

적하고 있다. 글캠은 이번 해부터 기숙사식을 최소 64식 의무식으로 전환해 제공하고 있다. 의무식으로 전환한 뒤의 문제점은 △강제적 결식△경제적 부담△환불에 대한 기준점 모호 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식사 시간 조정 △정부의 시정 명령 △환불제도 개선 등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시됐으며 학교와 기숙사생 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7면에선 학교의 낙후된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서울캠퍼스에선 △교수학습개발원△사회과학관△인문과학관의 화장실과 운동장의 농구대 등이 낙후돼 학생들이 불편을 제기했다. 현재 글캠도 교양관과 도서관 등 많은 건물과 시설이 낙후돼 있다. 학교 측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학생 쉼터 공사와 화장실 공사 등을 진행했으며 글캠에선 교양관 엘리베이터 공사와 교양관 계단 보수 등이 이뤄졌다. 앞으로 더 많은 낙후 시설이 보수되기 위해 학교 측이 학생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외대학보 1082호는 그동안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었던 불편한 점에 대해 보도했다. 특히 이번 호에선 그동안 산발적으로 존재하던 불만이 심층적으로 다뤄졌다. 분명 독자들도 공감할 사안이고 학교 측도 학보를 통해 문제를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외대학보에서 더욱더 다양한 학내 사안이 심층적으로 다뤄졌으면 좋겠다.

염재민(통번역 · 독일어 22)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국 · 부장 고정칼럼

단 한 번의 순간을

새학기가 시작되고 학보의 구성원이 바뀌며 걱정이 많았다. 아직 미숙한 내 실력으로 부장이라는 직책을 맡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문득 지난학기에 썼던 뒷담하는 기자가 떠올랐다. 할 수 있는 건 잘할 거고 못하는 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짐은 아직까지 여전하며 아마 내가 학보를 마무리 할때까지 계속 명심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학기도 나는 잘해야 하고 열심히 할 것이다.

새로운 구성원들과 새로 만든 학보의 분위기는 지난학과 사뭇 달랐다. 신입생들이 많아서 활발하고 산뜻한 느낌이 강한 것 같았다.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 조율하기도 하고 피드백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다. 이젠 학보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반성하는 나날이 컸다. 학보를 하다보면 가끔 내가 이 일을 해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질 때가 있다. 할 일은 많고 수차례의 마감을 하며 밤을 새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학보 일이 힘들다고 느껴지면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하는 생각이 들고는 한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에서부터 스스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학보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학내의 문제점에 대해 고발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학내 구성원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학교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루며 내가 몰랐던 학교의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혹은 평소에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현재 교강사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갑작스러운 폐강이나 시간 변경 등이 그 예시다. 또한 재수강 학점 제한으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성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와 학생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길 바란다. 그 밖에도 우리학교에는 아직 분실물함이 부재하거나 소방 관리 시설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는 등 해결해나가야 할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학보에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하며 발전해가려는 우리학교가 되길 기대한다.

신입 기자들에게 학보는 힘든 곳이고 알고 왔을테니 기왕이면 열심히 하라고 말했던 적이 있다. 사실 누군가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을 수 있고 학보 일이 맞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한 번 시작한만큼 신문을 함께 발행하고 그 신문을 보며 우리가 다 함께 맞이할 단 한 번의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해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학보를 위해서도 스스로를 위해서도.

임채린 부장 06chaelin@hufs.ac.kr



부엉이 메신저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특히나 많은 이번 학기! 너무나도 열심히 활동하며 국제학생회 ISO의 슬로건 ‘We Bridge Cultures’를 실천 중인 스탬들에게 항상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23-2 ISO 회장 이지-

꿈아야 앞으로도 건강하고 우리 오래도록 행복하자! 그리고 슈니 후쿠오카에서 일 열심히 하느라 힘들지? 우리 녀아도 파리에서 언제나 바쁘게 공부하고 있을 거 같아. 모두 동이가 아주 많이 응원하고 사랑하니까 힘내! ♥

-빼약 냥아 애동이가-

9인 각양각색 매력이 넘치는 5세대 신인 그룹 제로베이스원 넘 귀엽고 멋있어요!!! 특히 센터 장하오 군 덕분에 행복합니다♥ 짱하오 사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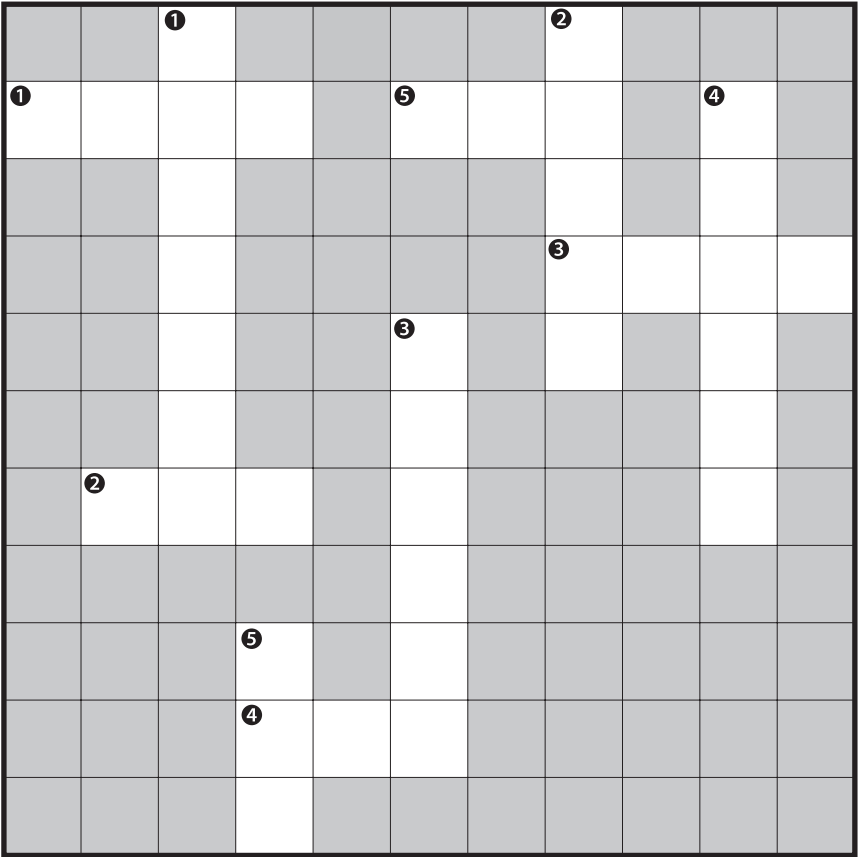
-익명-

일본학 대학 학술 동아리 망가데(漫画で)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대생이라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익명-



십자말풀이



가로

- 1. 지난 28일 우리학교 EU연구소는 ○○○○ 대학교에서 열린 북극 연구 커뮤니티인 NPARC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1면 참조)
- 2. 우리학교 분실물 관리부서인 ○○○ 서비스 센터는 분실물과 습득물을 관리하고 있다. (3면 참조)
- 3. 최근 교권 침해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한 정부가 기존 학생 인권외 보장에만 치중된 학생 ○○○○를 개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논의할 방침이다. (8면 참조)
- 4. 오익식 ○○○는 한국세무사회 감사로서 세무사의 길을 걷고 있다. (12면 참조)
- 5. 우리학교 ○○○는 학생들이 정규학기에 충실히 임하게 하기 위해 재수강 학점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면 참조)

세로

- 1. 지난학기 사융합전공이 교강사 구인난으로 인해 ○○○○○○교과목과 인공지능 교과목이 폐강됐음을 전공 누리집을 통해 알렸다. (4면 참조)
- 2. ○○○○○○는 대형마트나 편의점과의 제휴에도 성공하면서 전자화폐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9면 참조)
- 3. ○○○○○○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가차표 예매율은 최종 결제가 된 표 기준으로 각각 귀성 예매율 86%와 귀경 예매율은 79.4%를 달성했다. (7면 참조)
- 4. 지난 4월 교사○○○○○○이 조합원 11,3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7%의 교사가 최근 1년 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조사됐다. (8면 참조)
- 5. 우리학교 중앙동아리 경제학회 ○○○○는 지역예선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7개 팀을 대상으로 열린 전국결선대회에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2면 참조)

※파uzzle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이메일과 교환권을 드립니다.



사설

우울의 늪을 건너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되기

한 학생이 문자를 보냈다. 곧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만나고 싶다고, 취직해서 회사에 잘 다니고 있다고. 아주 바쁜 나날이었지만 반가워서 바로 답을 보냈다. 열론 만나자고. 물론 우리의 만남은 바쁜 일정 탓에 두어 번 연기되었다가 이루어졌다. 나는 만나자마자 그 학생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죽지 않고 살아 있어 주어서 고맙다고.

아직도 그 새벽의 놀라움이 잊히지가 않는다. 죽고 싶어 손목을 그었다며 사진과 함께 메일을 보내왔다. 집이 감옥이라고, 자기는 희망이 없다고 했다. 바로 그날 학교에서 학생을 만나 밥을 사주며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었다. 왜 죽고 싶냐 묻지 않고 그냥 주변 이야기를 했던 듯하다. 낯선 이야기, 친구 이야기, 요즘 재밌는 일들, 힘든 일들. 이야기 중에 수업에서 같은 조를 이루어 이야기하는 다른 학생들의 안부를 묻는 걸 보고 알았다. 적어도 이 아인 죽지는 않겠구나. 사람이건, 대상이건, 다른 존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의지가 살아있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불안을 감추며 아무렇지 않게 밥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면서, 나는 불쑥 말했다. 죽지 말라고, 네가 죽으면 선생님이 너무 슬퍼 살아갈 수가 없을 거라고. 학생이 말없이 웃었다. 그날 이후에도 종종 안부를 물으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랑 많고 기대 많고 관심 많은 부모님 얘기, 그 기대가 자신을 짓눌러 허덕허덕 하는 청춘의 나날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났다. 그렇게 두 학기가 지났다. 뭘 하더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내 진심에 응답해주지 않아도, 내가 내 꿈에 미치지 못할 것 같아도, 가족 안에서 위로를 받지 못해도, 죽지만은 말라고 늘 당부했다. 네가 가장 소중한데 왜 너를 죽이냐고, 어딘가에 네게 맞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네가 잘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이 있을 거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했다.

그리고 학생은 죽지 않고 졸업 학점을 다 채우고, 여기저기 원서를 내고 인터뷰를 하고 직장을 잡았다. 이제 새로운 이들을 만나 새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단다. 물론 부모님이 기대하신 좋은 직업은 아니라고 한다. 그래도 괜찮다 했다. 오늘을 견디고,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한 해를 견디며 살아가다 그 길에서 무언가 자기 목소를 찾는 학생을 보니 모든 게 다 고맙웠다.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정한 세계 자살 예방의 날(World Suicide Prevention Day)이었다. 2003년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다. 그날의 의미를 얼마나 새겨 기억했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층위에 속한다. 최근 5년간 자살한 초·중·고생이 822명이라고 한다. 죽는 사람은 학생만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자살한 공립교사가 100명이라고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잠재성을 끌어내는 공간인데, 언제부터인가 학교가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의 무덤이 되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목표가 오로지 대학이 되고, 교육의 목적이 오직 상급학교로 잘 진학하는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회. 숨 막히는 경쟁을 통과하여 대학에 들어와도 좋은 직장을 잡는 목표 아래 우리 학생들은 다시 또 숨이 막힌다.

학교에서 가장 생기 있게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주체인 가르치는 이들도 이 불행한 사이클에서 자유롭지 않다. 최근 잇따른 교사들의 자살로 드러난 학교 문제는 지금 우리가 처한 학교의 처한 위기가 여저 오늘의 일이 아님을 말해준다. 학교 밖은 또 어떤가? 학업 중단 청소년 9명 중 1명은 자살을 시도한 경향이 있다는 통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말해준다. 산재로 죽어가는 청년들의 숫자, 그리고 고립된 삶을 사는 이들의 숫자는 또 무얼 말하는가?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가치를 가르치고 나누는 공간이 되지 못하고, 학교가 그런 가치를 배우고 질문하는 공간이 되지 못한다면? 학생이 죽고 교사가 죽어 나가는 이 비극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우울과 절망의 늪에서 고민하는 우리 학생들이 많기에 이 글을 쓴다. 죽지 말자고, 다함께 서로를 잘 살피고 보듬자고. 교육 또한 사람을 살리는 건강한 가치를 지향하고 나누는 장이 되어야 한다. 고립 속에 혼자 우는 청년들이 주변에 없는지,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되기'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돌아본다.

·정은귀(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5subi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정은귀
편집장 조수빈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절세(節稅)미인 조세전문가

오의식 세무사를 만나다

오의식(경영 93) 세무사 (이하 오 세무사)는 우리학교를 졸업한 후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현재 한국세무사회 감사로서 세무사의 길을 걷고 있다. 오 세무사는 조세 전문가와 감사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세무사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조세 전문가로서 많은 이들의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오 세무사를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입학했던 지난 1993년은 학력고사 시험이 마지막으로 시행된 해였습니다. 당시 우리학교는 전·후기 분할모집으로 신입생을 선발했습니다. 다음 해부터 입시제도 자체가 변화할 예정이었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후기대 입시전형을 준비하며 친구와 같은 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죠. 특히 경영학과는 제가 꼭 가고 싶었던 학과여서 선택했어요.

Q1-1. 우리학교에서 기억 중 특별히 깊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캠퍼스는 좁지만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미네르바 동산의 정경이 기억에 납니다. 또한 학교 선배인 안성기 배우의 학교 방문 수업에서 재밌는 일화를 들으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냈던 추억도 떠오르네요. 그리고 캠퍼스 축제 때 공중전화박스가 가득했던 붉은광장에서 생맥주 빨리 마시기 대결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가끔 우리학교에서 바람이 제일 많이 분다는 도서관 옆 폭풍의 언덕에 앉아 술도 마시고 마치 고등학교의 담장을 연상시키는 통곡의 벽을 넘나들며 족구를 하기도 했죠. 이렇듯 다양한 추억을 쌓다 보니 학교에 대한 애교심과 자부심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Q2. 대학 시절로 돌아간다면 다시 하고 싶은 것과 다신 하기 싫은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인 지난 1997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해 다수의 기업이 존폐 위기에 놓이면서 취업이 매우 어려웠죠. 이후 경기가 점점 나아지긴 했지만 외환위기 이전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학교 고시반에 들어가게 됐고 무작정 고시공부를 시작했어요. 만약 제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여학연수도 다녀오고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취업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 없이 허송세월 보냈던 고시생활 시절은 되풀이 하고 싶지 않아요.

Q3. 많은 직업들 중 세무사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세무사를 희망했던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매일 자리를 옮겨 다니는 게 지겨워 우리학교 고시반 중 우리 학과 학생이 주로 들어간 공인회계사반에 지원하게 됐죠. 당시엔 구체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준비했습니다. 고시반을 마치 학교 동아리처럼 해이한 마음가짐으로 다닌 제게 합격의 길은 멀어졌고 그렇게 무의미한 고시 생활이 연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숙집 창문 밖을 바라보다 금세 훌쩍 지어진 아파트 단지를 발견하자 정신이 번쩍 들었고 결국 심사숙고 끝에 저한테 공인회계사보단 세무사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 진로를 바꾸게 됐죠.

Q4. 세무사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경험과 이를 극복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실 목표가 분명했던 세무사 수험생 시절엔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립된 가치관이나 목표가 없었던 고시 시절엔 매일이 힘들었습니다. 공부해야 할 분량은 많은데 쟁기고 싶은 친구나 선배가 많았으니까요. 인간답게 살고자 공부를 하는데 정작 고시 생활은 인간다운 생활을 포기해야 했죠.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이 친구와 선배를 위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조금 늦게 철이 들었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는 것보다 내가 내 짐을 감당하는 것이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Q5. 세무사 합격 후의 다짐이나 포부가 있나요?

초패왕 항우의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라는 고사성어처럼 확고한 목표와 합격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세무사 합격을 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세무사 합격 직후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세금분야에 관해 우리나라의 최고가 되고 싶었고 열심히 일해 돈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려웠지만 그때 세법 공부를 많이 하고 조세 정의의 바로 세우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Q6. 세무사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 특

정 세금을 납부하는 달에 바빠지는 직종으로 유명한데요. 이처럼 시기에 따른 세무사님의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한 해 중 전반기는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기에 무척 바쁩니다. 지금은 '세무사랑'과 같은 프로그램이 발전해 매일 밤을 새며 일하진 않지만 신고기간이 가까워지면 명절이나 공휴일 없이 주말까지 일하죠. 후반기는 △상속△양도△증여세에 해당하는 재산재세 신고를 제외하면 전반기에 비해 한가한 편입니다. 그러다보니 전반기에 못 간 휴가도 다녀오고 운동도 하며 가족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요. 사무실에 일이 있을 때 가는데 주중이든 주말이든 구분을 두진 않죠. 그리고 바쁠 때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모임도 나갑니다. 세무사의 경우 아는 사람이 많아 일이 생기고 이는 곧 수입으로 직결되기에 하반기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요.

Q7. 지금까지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보람했던 기억과 힘들었던 기억은 각각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몇 년 전엔 한국세무사회에서 전산이사로 활동했습니다. 한국세무사회엔 세무사랑이란 세무사회 소유의 전산화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시엔 외부 프로그램 회사의 제품을 주로 사용했고 세무사랑 프로그램이 널리 보급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무사랑 프로그램 사용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시절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설명서도 만들며 책을 쓰거나 강의도 했어요. 또한 수습 세무사 집체교육에 세무사랑 프로그램 시범사용 교육을 위해 세무사회 강당 천장에 많은 중계기를 설치했어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결과적으로 2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시에 세무사랑에 접속할 수 있었기에 이 일이 제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일은 세무사회 전체를 위해 노력한 일이었던 점에서 매우 보람찬 기억이지만 개인 사무실엔 일이 줄어 힘들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Q8.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도 세무사는 직업을 선택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도 세무사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학교는 타 학교에 비해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에도 학교를 다니며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외 기업과도 일할 기회가 종종 생기는데 의사소통의 문제로 기회를 놓친 적이 여러 번 있죠.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꼭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 세계화 시대의 인재로서 국제조세 문제를 직접 현지에 나가서 해결해보고 싶어요.

Q9. 세무사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세무사회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세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회무와 사무실 일에 치여 하루하루 현상유지로만 사는 것이 아닌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후배들과 화합하며 제 경험치를 넓히고 싶습니다.

Q10. 세무사를 준비하는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험 준비에만 매몰돼 있으면 시험공부가 힘들고 몸과 마음도 지칩니다. 물론 절대적인 공부 시간은 충분히 확보해야 하지만 목표와 동기를 명확히 하고 공부하는 것을 권해요. 또한 공부하고 있는 이 과목이 실무엔 어떻게 적용될지 상상한다면 조금은 덜 힘들게 수험기간을 헤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 준비에 과도하게 매달리지 마세요. 설령 준비하던 시험에 꼭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살면서 느낀 점은 우리학교 학생은 눈에 띄게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든 뒤처지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와서 생각해보니 고시생 시절 중간에 세무사 시험 준비를 포기하고 취업한 제 고등학교 후배나 우리 과 후배인 동문은 대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저보다도 훨씬 좋은 대우를 받고 있어요. 오히려 저를 항상 걱정해주고 있죠. 물론 10년 뒤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권오건 기자 07ogun@hufs.ac.kr

